



崔錫珍 (韓國環境教育學會 總務理事, 韓國教育開發院 首席研究員)



〈多民族 國家인 싱가포르의 환경보전 포스터〉

UN과 UNESCO 등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 관련기관에서 공동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 머릿말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은, 약 반세기전에 환경교육학(Pädagogische Milieukunde)이 성립되면서 근래에 선진 산업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유럽, 미국, 일본등에서 발달하면서, 근래에는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UN과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 관련기관에서 공동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각국의 환경교육 관련 기관들은 서로 협조하면서, 자국의 실정에 알맞는 교육과정(curriculum)과 교육 방법의 개발 및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교육의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뒤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본다. 여기에서는 환경교육을 위한 국제간의 활동과 주요 국가의 그것을 필자의 직접 경험이나 수집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관계상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환경교육을 위한 국제간 노력

먼저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주요 조치와 움직임을 정리해본다.

- 1970년 : 미국의 환경교육법 제정.
- 국제 자연보전연맹(IUCN)이 UNESCO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 실무회의” 개최
- 1972년 : 스웨덴의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인간 환경에 관한 UN회의”개최. 이 회의의 결과로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발족.
- 1975년 : 유고슬라비아의 벨그라드(Belgrade)에서 “국제환경교육 워크샵(Workshop)”개최. 그 결과로 “벨그라드 헌장(The Belgrade Charter : A Glob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Education)” 채택.
- 1977년 : 소련의 트빌리시(Tbilisi)에서 UNESCO-UNEP 주관으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개최-모든 회원국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제 환경 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

교육의 특성, 목표, 원리,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지침 제시.

- 1987 : 소련의 모스크바(Moscow)에서 “환경교육 및 훈련에 관한 UNESCO-UNEP 회의” 개최 - Tbilisi 회의 이후 10년 동안의 각국의 실천결과 점검, 1990년대의 환경 교육 및 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전략 수립과 각국의 경험 교환.

3. 세계 주요국의 환경교육

1) 미 국

미국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법의 제정과 환경청이 설립된 1970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초부터 대부분의 주(州)정부에 “환경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환경교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립 지질연구소, 국립과학재단, 교사협회, 교육위원회등을 중심으로 각종 연구, 프로그램과 자료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게 되었다.

이때 개발된 일부 프로그램은 1971년 부터 1973년까지 미국 초·중·고교의 약 4000개교에서 실시되고 그후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 학교환경교육이 체계화되어 하나의 독립 과목인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이 선택과목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모든 학교가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 내용을 주(州) 정부나 교육청(教育廳)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할 뿐더러, 정부 기관, 사설 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대단히 폭넓고 활발하게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중 1972년 오레곤 주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에너지와 “인간 환경(Energy and Man's Environment)”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을 여러교과에 걸쳐 강의, 실험, 시청각 매체이용, 현장 실습등으로 효과를 올렸다.

지질연구소등이 개발한 “환경학습계획(Environmental Studies Project)”은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연관찰이나 체험 활동에 참여토록하는데, 이런 방식은 미국 환경교육의 대표적 특성이다. 또 근래에 개발한 미시간 주의 루즈(Rouge)강 수질 정화 및 감시 프로그램은 하천유역 환경교육망(The Global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 GREEN)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발전하고(1989년 현재 20여 개국이 가입) 있는데, 이것도 직접 현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 소 련

트빌리시 국제 회의가 열렸던 1977년에 소련은 이미 국가 수준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방안을 조직한 상태였다. 즉 생물학 및 지리학을 전공하는 몇몇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연보존에 관한 일반 과정과 특수 과정을 시작했고, 자연보호운동이 확산되며, 소련방구성공화국(共和國)들의 자연보존학회의 활동이 활기를 띠어갔다. 그리고 소련의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1981년에 대부분의 학교 교과에 환경보호 문제를 포함시키고, 1984년 부터 생태학 과목들이 통합적 학교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으며, 환경교육용 교수·학습 지침과 자료들이 발간되고 있다.

소련의 환경교육은 모든 집단에 걸쳐 실시된다. 취학전 부터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에 이르기 까지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그 이후나 일반 대중에도 다양한 채널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된다. 또, 직장인, 사회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교사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각종 단체와 시설 및 자료를 통해 다양하게 실시되는데, 모스크바 교외의 대규모 자연생태계 공원등은 그 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비해 적극적 대책이나 투자가 따르지 못해서 우려하는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연관찰이나 체험 활동에 참여토록하는데, 이런 방식은 미국 환경교육의 대표적 특성이다.

“독일 환경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자치행정기관, 교회, 노동조합, 취미동맹, 레저모임등을 통해 다양하게 실시돼”

마가 커지고 있다.

3) 독 일

먼저 통일전의 서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독은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 선진국으로서 환경문제의 관심이 특히 높아 환경교육의 선진국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환경보전을 중심 모토로하는 녹색당(綠色黨, Green Party)이 국회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이 녹색당은 유럽 전체에 10여개국에 있다), 각 산업체와 생활 전반에 큰 관심사이고 인기 용어이며 이들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환경보전’이 판매를 촉진하는 상표 구실을 하며, ‘무공해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교회, 철학, 문학까지 ‘환경보전’테마에 몰두하며, 국제간의 협력도 활발하다.

1978년부터 환경교육을 각급학교에서 주요 주제로 지도할 것을 강조하였고, 1980년대 부터는 필수로 지도하게 법률로 조치되었다. 국회에서도 주요관심사이고 주(州) 및 연방 정부에 ‘환경보호부(Umweltministerien)’가 설치되었는데,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非)국가기관의 정치·사회 및 시민단체에 의한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제도 뿐만 아니라 별개의 평생교육기관, 자치활동기관, 교회, 노동조합, 여러가지협회, 취미동맹 레저 모임등을 통해 다양하게 실시된다. 그리고 비(非) 정규학교인 수백개의 ‘환경보전교육기관’에 많은 사람들이(1988년에 80,000명)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환경교육자들은 목표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대단히 많은 양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교육’에 관한 독립과목이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초등에서 대학원까지, 관련 과목은 많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개인 기업체 등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와 지원이

매우 많으며, 국제간의 정보교환과 협력도 활발하다.(우리나라와의 환경교육 세미나가 1990년에 이어, 금년 8월20-21일 주한 독일 문화원과 한국환경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부 독일은 환경보전에 관한 투자와 관심이 다른 공산권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부족으로 미약하다.

오늘날 통일 독일에서는 환경교육 강화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4) 일 본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심해지면서 ‘공해(公害, Kogai)’라는 말이 쓰여져 이제는 공해국의 대명사처럼 되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환경교육등 환경보전시책이 적극 추진되어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

일본에서는 미나마타병, 이따이 이따이병 등의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1967년에 ‘공해대책기본법’제정, 1971년 환경청 신설, 1970년에는 문부성에서 초·중학교의 사회과에서 공해관련 내용을 다루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공해교육’이라고 했으나 1973년부터 ‘환경교육’으로 바꾸었다.

일본의 환경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모두 매우 활발하고,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단체, 기업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과학과를 비롯하여 도덕, 가정, 음악, 미술 등 관련 교과를 비롯하여, 홈룸(Home Room), 특별활동(Club Activity), 학생회 활동등 전 교육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론 보다는 실기로 실천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과 기업, 사회에서의 환경교육도 매우 활발한데, 가정에서의 쓰레기 덜버리기와 분리수거에의 협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 자원 절약과 재

활용등은 큰 효과를 보고있다.

그리고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 각종 자료 개발등이 각급 학교,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협회, 단체, 위원회, 언론기관 등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매우 많이 발행되는데 대부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5)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들 동남아시아 지역도 도시의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 환경문제가 점차 심해지면서,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서로 인접해 있고 비슷한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인접국의 상호 협력으로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문제점은 경비, 인력, 정보, 자료의 부족, 개발론자와 개발요인에 의한 압력, 정치환경의 불리, 상호이해의 상충, 다양한 부족 집단에 따른 여러 언어로의 번역, 정부의 지원과 기업체간의 협조등이다.

그러나 이 지역 각국의 독특하고 적극적인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정책과 국제적 협력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간의 그것에 시사점을 주는 바가 많다.

각국의 특색있는 환경교육을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한다.

(1) 타일랜드

학교 환경교육은 초·중등 및 고등(대학) 교육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자연과를 비롯한 여러 교과에 걸쳐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으로 실시된다. 이 나라에서는 환경교육 자료개발이 특히 활발한데,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 직접 또는 출판사나 기업체의 일부 지원을 받아 40여가지 이상의 자료를 만들어 무상 또는 저극히 열가로 각급 학교와 일반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국교인 불교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UNEP에서 실시하는 「Global 500 Awards」에 스님이 3명(또한명은 대학 총장)이나 포함되었다.

(2) 말레이시아

이 나라의 국민학교 4, 5, 6학년 과정에는 통합교과로 “인간과 환경(Man and His Environment)”라는 독립교과가 있는데, 이는 필수 과목이다. 중등학교에서는 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와 일부 과학과에서 취급한다. 사회, 성인 교육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3) 싱가포르

환경교육이 교과등을 통한 학교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환경보전(특히 청결)”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독립되어 있는데, 이 부서가 있는 건물(Environment Building)에는 환경보전 종합전시관이 설치되어 많은 학생과 시민등이 연중 관람하며, 정기적 교육도 받고 있다.(그런데 이 빌딩 내에는 교육부의 환경교육관계 부서도 같이 있다.)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도 환경관련 행사를 적극 후원하거나 추진하며, 정부는 거리에 칩빨기, 휴지버리기 등의 사소한 것에서 부터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도 엄한 제재를 하며 주민계도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은 인공의 환경오염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